



정년을 앞두고

본인이

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해온지도 어언 30여년이 흘러 어느덧 정년을 앞두고 보니 유수와 같은 세월이라는 옛말이 새삼 실감이 나는군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입사한 후 대학시절의 은사님을 찾아뵙고 취직을 했노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몹시도 섭섭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전공이었던 화학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이 못 마땅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년을 앞둔 지금에 와서도 제 자신은 그때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만은 변함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산업보건분야의 업무가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그 시절에 그래도 나 같은 멍청이들이 있었기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 산업보건분야 업무가 이만큼이나 발전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착각 속에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본인이 산업보건업무에 발을 들여 놓았던 1970년대 초에는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직업관련성 질환은 물론 직업병이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가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산업보건 전공과정이 있었으나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도 거의 없었을 정도로 취약하여 산업보건관련 지식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관계로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독학과 체험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많았고 또한 실수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업병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되찾도록 함으로써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들을 생각하면 긍지와



이 은 영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위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업병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0년 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루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모 사업장의 여성근로자가 사업장의 불량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악성빈혈이 발병하였으니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므로 현장 조사를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찾아간 곳은 문산에 위치한 미국 등 서구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임용 가방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사업장에 도착하여 작업공정을 살펴보니 나무를 소재로 하여 원형을 만든 다음에 1차로 만들어진 가방원형의 내부와 외부에 합성피혁을 덧 씌우는데 이때에 나무와 접착이 잘 되도록 합성피혁에 도포하는 접착제의 주요 희석제가 바로 벤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검지관으로 작업장 내부의 공기 중 벤젠농도를 측정하여 본 결과 농도가 높은 곳은 무려 300 ppm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벤젠은 백혈병이라는 혈액암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서 공기 중 노출기준치가 현재는 암유 발물질이라 하여 1 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당시는 독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25 ppm을 노출기준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노출기준과 비교한다 하여도 10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고 현재의 노출기준으로 본다면 무려 300배 이상을 초과하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벤젠의 인체에 대한 독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문의해 본 결과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작업책임자, 공장장, 사장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하면서 냄새도 향긋하고 작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보면 기분도 좋아지는데 벤젠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냐며 오히려 의아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기가 막혔던 것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서 얼마 전에 산재요양신청을 한 여성근로자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했던 18세인 다른 여성근로자가 역시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모 국립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병 판정을 받았으나 일반적인 개인의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결국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혈병은 벤젠에 폭로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아 산재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나 피해근로자나 진단을 한 의사가 직업병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여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피해근로자가 이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외에도 그 당시에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직업병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부족했었고 일부 사업주는 알면서도 쉬쉬하고 감추기에 급급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근로자가 직업병에 이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피해여성근로자는 분명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으로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는 심증은 갔으나 이미 화장을 하여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 공장에서 700여명이 이황화탄소로 인한 직업병이라는 판정을 받은 원진레이온사건,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생식기장해, DMF에 의한 간괴사, 리사지·밭테리공장에서 연중독,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 MDI에 의한 기관지천식 등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산업보건의 발전과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식수준도 많이 향상되었고 제도적으로도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도입 등에 힘입어 다행히도 과거에 비해서는 재래형 직업병은 많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해 하루 평균 8명 가량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경제손실액 역시 12조 4000여억원으로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액의 5배에 달했으며 100만 6549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9만 4924명으로 이 가운데 업무상 사고자 수는 8만 5794명으로 전년대비 12.2%가 증가한 반면, 업무상 질병자 수는 9130명으로 68.5% 급증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자의 증가원인은 물론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문제점이라고는 하겠으나 선진국형 질병인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급격한 증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산업보건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노·사·정 모두가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법개정까지 한 바 있으나 노사 모두가 흡족해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난제 중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서두른다고 해서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사례와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노사합의하에 적용하기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물질의 풍요나 빈곤을 떠나 행복과 불행, 극락과 지옥을 만들고 허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사 모두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 선인들의 말씀대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처럼 하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한다면 근골격계질환 뿐만 아니라 직업병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산업사회는 반드시 찾아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인도 역시 앞으로 얼마나 더 활동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애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파이팅을 힘차게 외쳐봅시다. **한민**